

포천사회 知識人 ⑤1

대진대학교 홍은택 교수

대통령기 전국태권도대회 유치는 大學과 自治團體 교류의 標本

市民의 文化생활과 여러분야 이익 위해 大學 活用 필요

“대진대학교와 포천시와 민간단체가 합심하여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대학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존립하고 있는 만큼 각자의 전공을 살려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봉사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기 전국태권도대회를 포천시에서 유치하여 대진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하는 방식이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국에서 많은 인원의 선수단이 참가함으로써 지역 홍보 및 지역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은 대진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이며 대외협력처장으로 활동중인 홍은택(49·사진) 교수가 학교와 포천사회의 관계 속에서 발전방안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밝힌 내용이다.

경기도 광주 출생인 홍 교수는 서울 무학초등학교, 성동중학교, 영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석사학위 논문은 「Ezra Pound의 "Hugh Selwyn Mauberly"에 나타난 소외의식」, 박사학위논문은 「William Carlos Williams의 Paterson에 나타난 지역성 연구」다.

1994년3월1일 대진대학교에 부임한 홍 교수는 현대미국시를 전공했다. 현대미국시를 통해 20세기 미국의 주요 시인들의 작품을 연구하여 학생들에게 문학적인 소양을 길러 주고 작품을 읽는 과정에서 고급영어 실력을 키워주고 있다.

대진대학교에 강의하는 주요 과목명은 미국의 이해, 미국문화의 이해, 영미문화의 배경, 영미어문학 등이다.

홍 교수는 대진대학교 대외협력처장으로 활동중이며 대외홍보과와 국제협력과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대외홍보과는 주로 입학홍보와 대학 전체의 이미지 홍보는 물론 광고, 국내 각 기관과의 협력관계 등을 맡아 보며 홍보책자, 영상물, 학교사 등을 제작하고 있다. 국제협력과는 외국의 각 대학들과 협정을 맺어 학생, 교수, 직원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 설치한 수주부와 하얼빈 두 개의 해외 캠퍼스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전공을 통해 포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홍 교수는 포천시 국제화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천시 국



제화추진위원회는 포천시가 국제화업무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문을 얻는 기구다. 또 포천시의 내향적, 외향적 국제화를 위한 연구발표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영문학과 교수로서 포천시 각 초·중·고의 영어교육에 관한 자문도 해주고 있다. 아울러 홍 교수는 시인으로서 등단해 시집을 펴내기도 했으며 현재 포천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해마다 발간되는 '포천문학'誌에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홍 교수는 포천시민들에게 바라고 싶은 사항에 대해 “포천시에 자리잡고 있는 대진대학교를 아끼고 사랑해주시고 시민들의 문화생활과 여러 분야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대진대학교를 많이 그리고 자주 활용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꿈이 있으면 땀을 흘려라”를 평소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온 홍 교수는 대학은 지성인을 길러내는 곳이라며 전공지식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종합적인 판단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배양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한다. 강의실 안팎에서 학생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토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영화보기와 산책을 취미로 하고 있는 홍 교수는 전공관련 학교 행사에 대해 학생들과 영문학과 학술대회를 개최하면 영시낭송대회를 진행한다고 한다. 학생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다양한 퍼포먼스와 함께 즐거운 영시 낭송을 시도하고 있다.

수상실적으로는 1999년 시 전문지 「시인」시부문 신인상 수상으로 문단에 데뷔했다. 홍 교수는 한국시를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그동안 꾸준히 실시해오고 있다. 영역시집을 펴내기도 했으며 미국인 교수와 공동으로 최근 한국시 번역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현대영미학회 편집이사, 국제어문학 연구이사, 한국영미문화교육학회 부회장을 통해 본 John Donne의 낭만 중심주의(우리시대의 영문학, 인문당, 1991) William Carlos Williams의 지역성 연구(최준기 교수 정년 기념 논문집, 1992) Paterson에 나타난 지역성 연구: 도시 상징을 중심으로(비교문학 제17집, 1992) William Carlos Williams의 Paterson에 나타난 지역성 연구(한양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93) 등과 언어: William Carlos Williams의 Paterson 연구(대진총 인문사회과학편 제2집, 대진대학교, 1994) 중등학교 영어교재에 수록된 영시교육에 관한 연구(교육논총 제1호, 대진대학교, 1998) 문화이해를 통한 영어교육 방안 연구(교육논총 제2호, 대진대학교, 1999)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스의 「아스포델, 저 초록꽃,새로읽기(현대영미시연구 제5호, 2000) 「과정」의 시학으로 [페터슨] 다시 읽기(현대영미시연구 제8권 제2호, 2002)

▶영미 이미지즘 이론의 한국적 수용 연구(국제어문 제27집, 2003) ▶나병모, 이기정, 홍은택 공역, [동인영문독해], 도서출판 동인, 1996. ▶홍은택 지음,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스의 시세계], 도서출판 동인, 1998. ▶나병모, 이기정, 홍은택 공역, [실용영문독해], 도서출판 동인, 1999. ▶홍은택 외 공역, [현대영미시개관], 한신문화사, 1999. ▶홍은택, 라드니 타이슨 공역, [영어로 읽는 한국의 좋은 시], 문학사상사, 2003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한국의 詩를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

“구심점 상실은 現職 리더의 문제”

큰 프로젝트보다 소규모 공장환경 개선 시급



이강림 시의회 의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큰 프로젝트보다는 지역의 소규모 공장들이 잘 되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가구산업을 육성할 가구연구소와 섬유연구소를 조속히 조성해 연간 20조에 달하는 국내 가구

시장에서 이태리 고급제품과 중국 저가제품의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천지역 구심점이 약한 것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원로들을 모실 마음과 자세가 없고 '나 잘났다'는 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피니언 역할에 대해 같은 당의 지도자로서 시민들 앞에 함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서로 상대방을 칭찬해야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강림 시의회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포천지역사회의 특징은

예년에는 다른지역 사람이 이주해 오면 그 사람으로부터 이주해 온 사람의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전에는 출신지역에 대한 평가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평가가 바뀌면서 출신지에 대한 편견을 갖기 시작했다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좋은 뜻에서 배타성은 바람직하다. 면담 최인현 선생이 주창했던 자립의지라는 배타성은 계승발전 시키어 한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나타나는 배타성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정보력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타지역 출신이 이주해 오면 타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렇기에는 배타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포천출신이 아니면서 지역에 거주하면서 더 열심히 일한 타지역 출신들이 많다. 그 사람들이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지금은 타지역 출신이나 토박이에 대한 개념이 많이 희석되고 함께 융화되어 가고있다.

가평군과 연천군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포천은 소규모 공장들 때문에 인구가 늘고 있다.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보다 소규모 공장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가산과 소흘원역에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개발되기 시작했다. 포천에서는 소규모 공장들이 포천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구와 섬유업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이 신경을 써야한다. 국내 가구산업은 연간 20조원에 달한다. 조속히 가구연구소와 섬유연구소를 조성해 선진국과 중국의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원래 효자는 부모가 만들고 원로는 현직 오피니언 리더들이 만든다고 생각한다. 훌륭한 원로들에게 아낀맛과 아낀맛을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지역에는 국회의원 출신이나 장관출신은 있는데도 현재의 리더들은 원로로 모실 마음 자세가 없다.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원래 효자는 부모가 만들고 원로는 현직 오피니언 리더들이 만든다고 생각한다. 훌륭한 원로들에게 아낀맛과 아낀맛을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지역에는 국회의원 출신이나 장관출신은 있는데도 현재의 리더들은 원로로 모실 마음 자세가 없다.

▶지역사회 갈등원인과 해소방안은

갈등원인에 대해 여러사람들이 언급을 했다. 오피니언 리더 당사자들 보다 오히려 주위에서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갈등이 일어나면 누군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욕심과 야심 때문이다. 당사자들이 커뮤니케이션 정신이 부족한 것은 갈등원인으로 작용한다.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선거후 포용과 수용으로 해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갈등을 표출하는 사람에게 손해가 간다. 그리고 시민들은 갈등이 지역사회에 득이 안된다는 것을 다음 선거에서 판단해 줘야 한다.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지역현안 문제는 균형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큰 프로젝트 사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하기 쉬운 것부터 해야한다. 지역경기가 침체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금회전이 관건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염려스러운 것은 군내면과 가산면 일대에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공장들의 이주대책이다. 헬기를 타고 공중에서 보니까 가산과 군내지역은 자연스럽게 공단이 조성되어 있다. 그런데 포천시에서는 또다시 공장들의 집적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현상유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그리고 교육문제는 탈포천의 주요 원인이다. 장학재단 설립이 탈포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작용할 것 같다. 교육문제로 인해 외부에서 거주하는 공장주들이 교육문제가 해결되어 포천에서 거주했으면 한다.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아울러 현안문제는 포천동까지 도시가스가 조속히 들어와야 한다. 도시가스는 몇 년째 대진대앞에서 방치되어 있다. 도시가스를 빨리 포천동까지 끌어들이어야 할 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은

대통령 선거가 12월에 있다. 지역의 리더들간의 갈등이 끝날 것이다. 리더들간의 의견관계로 트러블이 있기는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오히려 확대 해석 한다. 서로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의원과의 시장은 같은 당 소속으로 지도자로서 시민들 앞에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포천의 지도자로서 서로 상대방을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허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고객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입맛에 꼭 맞는 음식만을 제공하겠습니다.



철판볶음



토종 순대모듬



찰순대



- 삼겹살 : 8,000원
- 순두부정식 : 6,000원
- 두부삼합 : 20,000원

자연 그대로의 맛과 향기를 옮겨놓았습니다.

- ▶국내 최초 삼겹살 레스토랑의 혁명!
- ▶호텔급 샐러드(30여가지) 무한제공!
- ▶대형연회석 완비
- ▶셔틀버스 운행(10인 이상)
- ▶샐러드바 PM. 5:30 Open

☎ 031-544-4492~3

무봉리 토종 순대국 체인점 문의 대표전화 : 031-877-9969
본 사 : 031-542-4466